

### 13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

성경말씀: 빌4:10-13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바울의 기쁨(4, 16), 빌립보서 안에는 적어도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온다. 왜?

기뻐할 상황인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한다.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 상황에 상관없이 리드하고 나가는 사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것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로 표현하였다. 온도계, 온도 조절계  
사도 바울은 온도 조절계, 그가 가면 언제나 리더가 된다.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지속하였다.  
그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는 승리자였다.

#### 그리스도인의 만족(11)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11).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13).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18). 우리는 이것을 만족(contentment)이라고 부른다.

현대인들의 문제: 만족이 없다. 가장 처음 만족하지 않는 존재, 마귀(겔28:12-15, 사14:12-15)  
아담과 이브의 문제(창3:1-5),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험: 불만족, 하나님 원망

이유: 교만, 나를 나 이상으로 높이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만족과 감사가 상황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 신뢰하는 데서 이루어진다(6-7, 13).

우리가 말하는 만족의 정의: 1. 자기만족이 아니다. 자기만족에 빠지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감사를 모른다.

2. 갈등과 싸움이 없는 만족이 아니다. 싸우고 갈등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화평, 이것이 만족이다(7). 바울을 보고 배울 때 얻게 된다(9).

#### 바울의 고백(11)

나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11).

먼저 설명 고후11:23-28, 12:7-11

배우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즉 그는 구원받자마자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약 30년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벧전2:3). 날이 가면서 배우워야 한다.

‘만족하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말  
‘스스로 충분하다’, 과거에 금욕주의를 실천하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그런데 우리의 민족은 우리 자신으로 인해(금욕과 고행, 절제 등)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13). 이것이 바울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게 된다.

#### 하나님의 섭리(10)

바울은 주님을 크게 기뻐하였다. 왜? 옥에 갇혀 있다. 사실 교제가 필요하고 사랑의 선물이 필요하다. 로마 교회는 바울로 인해 내분(빌1:13-18)

그런데 놀랍게도 뜻밖에도 1000킬로미터나 떨어진 빌립보에서 성도들이 사랑의 선물을 보냄(10)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

기적: 자연 세계의 법칙을 깨드리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홍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섭리: providence, pro 미리 vidence, (video)보다, 즉 하나님이 미리 보고 준비해 주시는 것  
왜 성경을 읽는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

모세를 보라. 이집트의 왕자, 자기 힘으로 구원 이루려고 함, 사람을 죽임, 탄로 나서 미디안 땅으로  
쫓겨나서 40년간 양치며 똥 치우는 생활, 아무 소망이 없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심

다니엘을 보라. 어린 나이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감, 수모를 겪으면서도 왕 중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포,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 기록, 하나님의 섭리  
 지금 우리가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와 있는 것, 오기 전에 믿음 생활하며 고생하던 것  
 나는 승리침례교회 하다가 패배함, 죽고 싶은 심정, 그것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성경 교정 열심히 한다. 이단성 시비,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계기  
 대한민국을 보라. 법치가 무너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2년,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  
 죽을 쑤고 있다. 좌익 독버섯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들의 모든 위선이 다 드러난다.  
 그 결과 나라를 사랑하는 지식인들이 국민 계몽, 이제 드디어 좌익들을 몰아내고 정상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자유 통일 할 수 있다. 2-3년 저에는 암울했다. 하나님의 섭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나라 유지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롬8:28을 믿는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히스기야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바울에게 이루어진 섭리  
 내 것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인생은 아무 계획 없이 일이 생기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섭리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적의 나라, 섭리로 지켜주신다. 자유 통일 이룬다.

### 하나님의 권능(11-13)

바울은 선물을 받아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11).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어디서나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11)  
 구체적으로(12), 12절의 배웠다는 말은 instruct, 비밀을 배웠다는 말이다. 비결을..훈련/지시받았다  
 가난하게도 살고 부자로도 살 수 있다(고후11장일 보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적: 가난과 부요함, 부요함이 더 어렵다. 부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기는 심히  
 어렵다(솔로몬을 보라). 그런데 바울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다. 목사의 바람: 우리 성도들이 이왕이면 부요한 데 처하기를 원한다. 재물을  
 많이 벌여 잘 다스리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 원한다.

바울의 최종 결론(13),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힘의 주체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

현대역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변영 복음 레퍼토리  
 아니다.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무를 보라. 참 잎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아름답다. 우리 학교의 목련, 벚꽃  
 자 그런데 나무의 아름다움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시련이 올 때에 버티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뿌리에 있다. 땅 속에는 위로 드러난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뿌리가 있다. 심지어 바위까지도 파고 들어간다.

왜 물을 얻으려고. 그러므로 그 나무의 아름다움, 버티는 힘은 뿌리이다. 안 보인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뿌리이다.

우리의 아름다움, 열매, 사역의 원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버티는 힘의 원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요15장을 보라(15:1-5).

### 결론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한다.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

그리고 4:6-7을 믿고 신뢰하라.